

세계 정치와 하나님 (3) – 천년 왕국의 소망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

[시편 22:28]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시편 103:19]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이사야 9:6-7]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마태복음 4: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 창세부터 메시아까지의 세계사 조명

우리는 지난 두 편의 “세계 정치와 하나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에 예비하셨고 그분의 왕국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리고 땅의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 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세계 통치의 엄중한 소명을 부여하셨는데, 불행히도 우리 최초 조상들은 이를 소홀히 여기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세계 통치의 소명은 ‘선한 관리자’의 소명으로 축소되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지근에서 보좌하던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세계 통치의 권한을 부여하자 이를 시기하여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늘 왕국의 천사들 중 3분의 1을 선동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들과 함께 다른 천사장 마이클의 지휘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 전쟁을 벌인 결과 패배함으로써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사탄의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사탄에게 패배하여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영존하는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향유할 특권을 잃어 버렸고, 그 자손들의 계속되는 패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과 살아있는 동물을 모두 대 홍수의 격변을 통하여 멸절하신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흐들어서 온 세계에 분산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사에 직접 개입하신 여러번 중 주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에 한민족도 중동지방으로부터 만주와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해 와서 정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종하는 한 사람을 눈여겨 보시고 그를 이끌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인도하시고, 그와 축복의 언약을 맺어 그의 후손을 자신의 친 백성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적자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일가 70여명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200여년을 지내며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 상태로 고생이

막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것이 출애굽의 큰 사건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큰 역사[役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통솔을 받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을 온전히 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려 사는 동안에 그들의 종교와 풍습에 점점 물들어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문화적인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정 정치 제도보다는 왕권 제도를 해야만 강력한 국가를 수립할 수 있겠다고 믿게 되었고, 이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을 거쳐오면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수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여 국가 종교와 예배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부패, 이어진 그 아들의 어리석음으로 나라는 북 이스라엘 왕국과 남 유대 왕국으로 이분되며, 양 국가들은 올바른 예배를 잃어가면서 정치적 불안정, 도덕적 패퇴 그리고 주변국가들의 반복되는 군사적 침략을 통하여 결국 둘 다 국권을 상실하고 지도층과 백성들 상당 수가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대언자[代言者]들을 두 나라에 보내시고 그 지도층들을 깨우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사람들의 회개와 협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혹독한 나라 없는 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패허가 된 가나안 땅, 온전히 파괴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절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과 성문을 보수하여 나라를 재건합니다. 율법을 되찾아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율법주의에 빠지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며, 서로 분파를 일삼고 지도층은 양민을 착취하며, 위선에 가득한, 겉만 그럴듯한 '유대교'를 수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시고 약 400여년간 대언자들을 보내지 않으심으로써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약 2천년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수행하신 가장 위대한 직접 개입 행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그분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올바르게 경배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21: 33-43에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표현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 생산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이를 농부들에게 세 주고 멀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소출의 정당한 부분을 받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여럿 보냈는데 소작인 농부들은 이들을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결국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인다는 얘기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일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세상 통치의 대 원칙을 천명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기 얼마 전에 회개의 침례를 전도하는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1-2]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왜 이 두분은 동일하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일까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는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 대부분 사용된 표현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의 표현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 [a nation in heaven]”라고 생각하지 ‘하늘의 왕국’으로서 이 땅에 구현될 수도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 [nation]와 왕국 [kingdom]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나라’는 국토와 국민과 통치 주권을 갖춘 모든 나라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이나 ‘하늘 왕국’을 모두 천국으로 번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인생 속에, 교회 안에, 커뮤니티들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세계에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왕으로써 통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세력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식민지로서 심한 압제 정치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패한 유대인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의 주구인 세리들로부터 극심한 착취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파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받아 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경험하면서 “이 분이 과연 우리를 구해줄 메시야가 아닌가!”라고 흥분하며 그 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 다녔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 해방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옛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왔는가, 라고 기대와 흥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7장을 통하여 하신 산상 설교에서 물리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이나 해방 운동에 관하여는 한 마디도 없이 이스라엘의 영적 쇠신과 도덕성 회복에 관하여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하여 심히 책망하시고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살이에 관하여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31-33]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왕도 나라도 모두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 항거하여 많은 반란이 일어났고 실패한 반란자들이 수 없이 십자가에 처형되고는 했습니다. 백성의 먹을 것, 입을 것 등 살림 걱정은 하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걱정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명하신 대원칙을 우리는 심각히 묵상하고 그 의미를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난 2천년의 인류 역사를 살펴 보면 모두 권력 다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경제 체제를 뒤엎고, 개혁하고, 전쟁하면서 서로 죽이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하나님은 저버리고 과학의 성취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정신을 부패하고 정의는 잊혀지면서 하나님의 원칙과 공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의 집단에서만 이야기 되는 희귀성 테마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일이 다른 모든 아젠다 보다 앞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통하여 인간 세상에게 내리신 명령이요 세계 통치의 대 원칙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 보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물리적인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해방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빵이라고 하시고, 생명수라고 하시고, 참된 목자라고 하시고, 하늘 왕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하시고, 등등 자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 클레임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더욱 혼돈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고 이탈했지만 오직 열두명 제자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소수의 신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보고 커다란 지진같은 충격이 그들의 가슴을 치고 난 후에야 이 왕국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3. 하나님의 왕국과 현 세상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이 정답입니다.

[시편 22:28]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시편 103:19]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시편 22:28 에서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왕좌는 우주를 포괄하는 ‘하늘들’에 마련되어 있으며, 거기에 좌정하시고 이 지구 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의 어떤 큰 나라, 예를 들면 미합중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같은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광대하고 차원이 다른 큰 영역을 포함합니다. 미합중국의 대통령과 의회도 최근 발발하여 온 세상을 떨게 만들고 있는 코비드-19 같은 역병 하나도 어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찢찢매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오늘날의 아카바 해협]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물결을 중단시키고 온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번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이적을 통해 승리를 얻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1967 년의 6 일 전쟁 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등의 아랍 국가들의 침공 군대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2천여년 만에 회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구현되어 있는 곳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신봉하는 국가들과 상당 수의 국민이 기독교인인 그런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은 기독교인인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익과 자유를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추구하는 최소한의 정책인 것입니다.

미합중국은 인류 역사상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국가 이념으로서 헌법에 명시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축복하시고 강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 채널로 삼으셨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에 미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매우 활발히 준동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개를 치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공공연하게 사탄 숭배를 하고, 아이들을 인신 공양하고, 성 혁명을 통해 도덕을 떨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였으며, 태아를 몇 백만명씩 죽이는 일을 연방 예산으로 지원하고, 마약의 창궐로 사람들의 정신이 썩어가고, 화학 약품이 섞여진 식품과 의약품으로 무수히 많은 신체 및 정신 박약아들이 태어나며, 비만한 사람들의 비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건강을 많이 잃어도 탐욕이 지배하는 보건 후생 체제가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해매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좌파 미디어들은 썩어 빠진 정치인들의 스캔들은 숨겨주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대통령과 리더들을 헐뜯고 매장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디어들의 편향된 보도들로 인해 국민과 외국 국민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통령을 욕 해댑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왕국'인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미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되돌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회복하고 그분의 계명을 이 사회에 구현해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위상이 이제 세계에서 9위로 올라가서 교민들이 좋아 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한국 정부와 여당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붉게 물든 사람들로 가득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는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탐욕과 위선으로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여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목사를 돈만 탐내는 "먹사"로 부른다고 하니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회자들이 샅군들이 되었고, 공산화 되어 가는 정치 현황을 외면하고 있으니 어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왕국'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회복, 올바른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기도 운동을 이끌려면 목회자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탐욕에 이끌려 취득한 모든 것을 삭개오의 본을 받아서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하며, 가난하게 와서 가난하게 살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본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호의가 돌아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가의 앞날이 창창하고 바라는 통일도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크리스찬의 참 소망

이 세상이 부패하고 퇴락에 빠진 상태를 볼 때에 주 예수님의 참된 본을 사랑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은 “주여 빨리 오소서!”라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앞당겨 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데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크리스찬들은 옛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앞으로 가게 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 [히 11:16]” 입니다. 깊은 산속의 오염되지 않는 맑은 웅달샘 물을 맛보던 사슴이 어떻게 오염물이 상당히 섞인 한강물이나 포토맥 강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물의 근원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마시겠지만, 매일 그 역겨움에 구토를 하고 중국에는 병에 들어 죽어 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패악을 보는 참된 크리스찬의 영혼이 그와 같습니다. 매일 기도와 묵상 속에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 오는 맑은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패악의 매연을 어쩔 수 없이 호흡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아파오고 소화기관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서 빨리 오소서 [계 22:20]!”

둘째로, 참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셨습니다. 사탄의 무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원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게 살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회유하고, 의심을 집어 넣고, 온갖 증오와 질투와 분쟁하는 마음과, 탐욕과 색욕을 부추기고, 화평을 버리고 서로 싸우게 부추기며, 죄 짓게 함으로써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유도하는 등 그들의 횡포가 말할 수 없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세를 볼 때에, 그들을 더 이상 별하지 않고 놔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어긋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 이상 그대로 두지 마옵소서. 그들을 징벌하소서 [계시록 6:10]”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 종말의 7 년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 오셔서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세상에서 홀연히 떠 올려져 공중에서 주님과 그의 참 백성들과 합쳐져서 하늘 왕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영광의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짧은 순간에 공중에서 주님을 뵈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 년간의 환란 기간에 뒤에 남은 사람들이 겪게 될 참으로 참혹한 재난과 환란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될 것이니, 이 얼마나 큰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쟁과 재난과 핍박과 고통에 괴로워 할 그 때에 우리는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혼인 예식에 참여하여 혼인하게 되면 이제 정식으로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년이 지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내려와 그 분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런 직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 천년 왕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베들레헴에서 2 천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 나중에 천년 왕국을 통치할 왕이 되실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통치권을 받고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권위와 영광 앞에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9:6-7]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변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런 소망입니까? 참된 크리스찬의 소망은 종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대언자들의 예언들과 요한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잘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쌓아 둔 것이 너무 많아서 종말의 소망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늘의 왕국'에 갈 때에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이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예수 그리스도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각 나라는 주님이 임명하는 성도들이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되어 나라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다스릴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없을 것이므로 군대도 필요 없어서 병기를 녹여서 공구를 만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오늘날 부와 권력을 쥔 자들은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낮은 골짜기가 올라올 것이며, 높은 산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대홍수 이전의 이 땅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성은 그대로 있어서 탐욕과 분쟁과 시기, 질투 등 좋지 않은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 무리는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을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에 의한 문제들은 없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 왕국은 이 땅에 구현될 주 예수님이 왕중의 왕으로 통치하실 지상의 왕국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되신 주 예수님이 통치하실 왕국이 올 날이 멀지 않아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종말의 시기를 맞을 준비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아멘.